

2024년 ANC 온누리교회

Zoom을 통한 양육 세미나

9/ 3(화), 10, 17, 24, 10/ 1, 8, 15(화) (7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9:00

로마서 강해(講解) (3)

강사 : 김정복 목사

로마서 개관(概觀)/ 내용분해(內容分解)

개인의 구원문제
1:16-8:39

인류의 구원문제
9:1-11:36

그리스도 인의 삶
12:1-15:13

복음의 주제/1:16-17

인간에게 필요한 의/1:18-3:20
이방인의 죄/1:18-32
도덕주의 자의 죄/2:1-16
유대인의 죄 /2:17-3:8
요약/3:9-20

칭의/의롭다함을 얻는 길
3:21-5:21
칭의의 정의/3:21-31
칭의의 실례/4:1-25
칭의의 결과/5:1-11
칭의의 보편적 적용/5:12-21

성화/의에 이르는 길
6:1-8:39
죄로부터의 자유/6:1-23
율법으로부터의 자유/7:1-25
죽음으로부터의 자유/8:1-39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
9:1-11:36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바울의 사랑
9:1-5
하나님의 선택의 경륜
9:6-29
이스라엘의 현재
9:30-10:21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11:1-32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대한 찬양
11:33-36

의의 실천
12:1-15:13

그리스도 인의 헌신
12:1-2
교회와 관련된 삶
12:3-8
사회와 관련된 삶
12:9-21
세상권세와 관련된 삶
13:1-14
그리스도 인이
지켜야 할 사항들
14:1-15:13

서언
1:1-15

자기 소개와 인사
1:1-7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로마 교회에 대한 관심
1:8-15

맺는말
15:14-16:27

바울의 계획
15:14-16
개인적인 인사말
16:1-16
마지막 권면과 축복
16:17-27

칭의(稱義), 의롭다함을 얻는 길

개인의 구원문제 (2)

롬3:21-5:21

칭의(稱義)/ 의롭다함을 얻는 길(롬3:21-5:21)

칭의(稱義)의 정의(定意)/3:21-31

칭의(稱義)의 실례(實例), 아브라함/4:1-25

칭의(稱義)의 결과(結果)/5:1-11

칭의(稱義)의 보편적 적용(適用)/5:12-21

율법 외(外)에 나타난 의(義)(롬3:21-31)

이제는 율법 외(外)에 하나님의 한 의(義)가 나타났으니
율법(律法)과 선지자(先知者)들에게 증거(證據)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義)니
차별(差別)이 없느니라(롬3:21-22)

율법/거울

율법(律法)/ 행(行)함으로/ 의(義)
죄(罪)/ 십자가/ 대속(代贖)

선지자/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의(義)

칭의(稱義)란 무엇인가?(롬3:21-31)

모든 사람이 죄(罪)를 범(犯)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贖良)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義)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血)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和睦祭物)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罪)를 간과(看過)하심으로
자기의 의(義)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義)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義)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義)롭다 하려 하심이라(롬3:23-26)

칭의(稱義/dikaion)란 무엇인가?

“칭의(稱義)”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의(義)”가 근거(根據)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방편(方便)이 되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죄(罪) 없다고
“법적으로 선언(宣言)해 주시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贖良)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3:24)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난 날의 모든 죄(罪)는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고 칭함(稱義)”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칭의(稱義/dikaio)란 말의 의미

이는 우리는 죄인(罪人)이고 죄(罪)의 값은 사망(死亡)인데
죄(罪) 없으신 예수님께서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사
나의 죄(罪) 값을 나 대신 지불(支拂)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불(支拂)할 죄(罪)의 값(죽음)이 없어졌다는 뜻이며
내가 다시는 죄(罪)를 짓지 않는 의인(義人)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의(義)롭기는 칭(稱)함을 받았으나
죄(罪)를 지을 수 있는 육신(肉身)에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 범(犯)하는 죄(罪)는 계속해서 회개(悔改)해야 한다.

헬라어로 "의로워진다"는 말은 "dikaio"인데,

이 말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란 뜻이다.

헬라어에서 "ow" 로 끝나는 동사가 윤리나 도덕을 말하면
"... 로 여김을 받는다"란 의미를 갖는다.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다/Jesus paid it all.

JESUS PAID IT ALL

SIN	죄	PAID
SHAME	수치심	PAID
PAIN	고통, 괴로움	PAID
PAST MISTAKES	과거의 잘못	PAID
REJECTION & LONELINESS	거절과 외로움	PAID
SLAVERY TO SIN	죄의 노예	PAID
SPIRITUAL DEATH	영적 죽음	PAID

=====

AMOUNT DUE	0.00
CHANGE	0.00

=====

Subtotal	0.00
GRAND TOTAL	0.00

***** 0000 XX/XX **칭(稱) 의인**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ANS 6.23

죄(罪)의 값은 사망(死亡)이요
하나님의 은사(恩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永生)이니라
(롬6:23)

우리가 아직 죄인(罪人)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確證)하셨느니라
(롬5:8)

의인(義人)과 의인(義認)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義人)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치우쳐 함께 무익(無益)하게 되고
선(善)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3:10-12)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贖良)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恩惠)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稱義)을 얻은 자(義認) 되었느니라(롬3:23-24)

성도(Saint)는 의인(義人)이 아니고 의인(義認)이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聖徒)는
의인(義人)이 된 것이 아니고
의인(義認)이라고, 칭(稱)함을 받는
죄인(罪人)인 것이다

따라서 의인(義認)은 성화(聖化) 되어야 한다
성화(聖化)는 곧 자아파쇄(自我破碎)이다
자아파쇄(自我破碎)는 영적(靈的)인 무덤에서
자아(自我)가 매일 죽어야 한다

의인(義認)이 의인(義人)이 되는 길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生命)**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자아(Ego)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자아파쇄

예수의 **생명(生命)**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肉體)**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4:10-11/고전15:31/눅9:23/갈2:20/겔37:11-14)

죄(罪)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죄(罪)는 율법(律法)있기 전에도 있었다
죄(罪)의 값은 사망(死亡)이다

모든 사람이 죄(罪)를 범(犯)했다/전적타락

칭의인
(稱義人)
의인(義認)
은혜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구속

예수/ 십자가
죽으심/피/대속(代贖)
은혜/믿음/구원/선물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성령세례
성령충만
의인(義人)
사도/직분

부르심
사명자
산 제물 (롬12:1)
살아서 순교자

자아파쇄(自我破碎)/ 성화(聖化)
나는 날마다 죽노라/영적 무덤/부활
고후4:10-11/고전15:31/눅9:23

칭의(稱義)의 실례(實例)/ 아브라함/ 롬4:1-25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行爲)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롬4:2-3)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창15:4-7)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때(창15:6)는 할례받기(창17:23) 전이다

아브라함은 무할레자와 할레자의 조상이 되었다

무할레자의 조상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롬4:3/창15:6)

할레자의 조상

또한 아브라함은 할레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레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롬4:12/창17:23)

칭의(稱義)의 결과(結果)/롬5:1-1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5:1)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롬5:8-10)

하나님께서 율법(律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롬5:12-14)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롬5:20-21)

죄(罪)가 더한 곳에 은혜(恩惠)가 더욱 넘쳤다

율법(律法)이 들어온 것은 범죄(犯罪)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罪)가 더한 곳에 은혜(恩惠)가 더욱 넘쳤나니(롬5:20)

율법은 우리 자신의 죄를 비취주는 거울(물두멍)이다

따라서 율법(거울)이 있어야만

내가 범죄(犯罪)한 것을 깨닫게 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내가 범죄한 것을 더 많이 깨닫게 하고
죄(罪)가 더한 곳(죄가 많은 곳)에는 회개(悔改)가 더욱 많아지므로
회개(悔改)가 많은 곳에는 은혜(恩惠)가 더욱 넘치게 된다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언약성취(言約成就)

무(無) 율법시대(律法時代)

율법시대(律法時代)/ 은혜시대(恩惠時代)

아담
선악과 이전
무죄(無罪)

아담
선악과 이후
유죄(有罪)

아브라함
대홍수 이후
사망(死亡)

모세
율법과 성막
율법(律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恩惠)

에덴동산
선악과
따 먹기 이전

에덴동산
선악과
따 먹고/죽음(흔)

메소보다미아 /
하란 땅
아브람을 택하심
이삭/ 야곱
12 지파/ 유다

시내산
십계명(율법)/ 성막
오대제사

겻세마네 동산/ 기도
선악과 반납 (잔)
흔(Soul)의 죽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영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자손
육신의 혈통

어린양 예수
화목제물 예수
대속 주 예수

십자가/골고다 동산
육(Flesh)의 죽음(피)
율법완성/구원성취

하나님과 동거
창1:26-28, 2:7
창2:4-25

구원의 예정
창2:17, 3:6, 15,
마1:20-23, 눅1:35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교회의 모형
출19-20, 25-40장
요1:29, 요일4:9-10

교회의 머리와 몸
눅22:42, 요19:30, 34,
롬10:4, 엡1:22-23

칭의(稱義)를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本體)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5-8)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9-11)

예수님의 비하(卑下, Humiliation)와 승귀(昇貴, Exaltation)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사(요일4:9-10)

온전한 중보자(Mediator, 딤펢전2:5, 히9:15)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그가 이룩한 의(義, Righteousness)인데,

그 “의(義)”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能動的順從, Active Obedience)과

수동적 순종(受動的順從, Passive Obedienc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仲保者)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사

비하(卑下, humiliation)의 과정을 거치셨으며, 그 결과

수동적으로 승귀(昇貴, exaltation)의 과정에 이르게 되신다.(빌2:5-11)

비하(卑下, Humiliation)와 승귀(昇貴, Exaltation)의 내용

예수님은 능동적(能動的)으로 하나님께 순종(順從)하시고
비하(卑下, Humiliation) 하셔서(빌2:5-8)
성육신(成肉身), 수난(受難), 죽음(死亡), 매장(埋葬)되셨고

예수님은 수동적(受動的)으로 하나님께 순종(順從)하시고
승귀(昇貴, Exaltation) 하셔서(빌2:9-11)
부활(復活), 승천(昇天)하셨고, 앞으로 재림(再臨)하신다.

칭의(稱義)를 이루기 위한

성도(聖徒)의 회개(悔改)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은 왜 계속해서 회개하여야 하나?

구원(Redemption)은

1. 구원의 과거면(past aspect), 2. 구원의 현재면(present aspect), 3. 구원의 미래면(future aspect)의 세 면(three aspect)이 있다

1. 구원의 과거면(past aspect, 過去面) : 칭의(稱義, Justification)

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3:16-17)

구원의 과거면(past aspect, 過去面) : 칭의(稱義, Justification)

2)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9-10)

3)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딤후3:5)

4)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엡2:8-9)

5)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One & Only God)이심을 믿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한다(Born again)

구원의 과거면(past aspect, 過去面) : 칭의(稱義, Justification)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난날의 모든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고 칭함(稱義)”을 받는다.(롬3:24)

칭의(稱義)란 말은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삯은 사망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 값/사망을 나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불할 죄의 삯/혼(Soul)의 사망이 없어졌다는 뜻이지 내가 다시는 죄(罪)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은 받았으나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에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 범하는 죄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

2. 구원의 현재면(現在面/Present aspect) : 회개(悔改/Repentance)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稱義)을 받고(롬3:24, 5:1),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요1:12, 롬8:15, 갈4:6)

우리는 아직도 “육체의 몸” 안에서 살고 있고

“죄(罪)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軟弱)한 인간”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때에 “영혼은 중생하여(요3:5, 딤후3:5)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겠다는(롬6장) 마음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죽지 않았고,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육신은 주님 재림(再臨)하실 때에 부활하는데

그때 이미 죽어있으면 무덤에서 부활(復活)하게 되고

살아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홀연히 부활체(復活體)로 변하게 된다.

구원의 현재면(現在面/Present aspect) : 회개(悔改/Repentance)

구원의 현재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요일2:16)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한다.

바울은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한다”(롬7:22-23)고 탄식한다.

구원의 현재면(現在面/Present aspect) : 회개(悔改/Repentance)

이는 구원의 현재 면에서
영(Spirit)의 생각과 육(Flesh)의 생각의 싸움인 것이다.
따라서 이 땅의 교회(教會)를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전투교회(靈的戰鬪教會)”라고 한다.
또한 우리는 구원의 현재 면에서
계속해서 회개(悔改)하며 죄악(罪惡)과 싸워 이겨야 한다.
계속해서 회개(悔改)하지 않는 것은 죄(罪)이다.

회개(悔改)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 1) 하나님께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My Lord), 나의 하나님(My God)으로 인정(Admission)한다
- 2) 나는 죄인(Sinner/Sinful man)인 것을 인정(Admission) 한다
- 3) 지난 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Confession)하고, 용서를 간구한다
- 4) 즉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죄(sins)와 악(evils)에서 떠난다
- 5) 회개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낮추며, 겸비하게 생활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罪)를 자백(自白)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義)로우사 우리 죄(罪)를 사(赦)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不義)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9)

3. 구원의 미래면(未來面/Future aspect) : 영화(榮化/Glorification)

구원의 미래면(未來面)은

예수님께서 재림(再臨)하실 때에 구원(救援)이 완성된다.

따라서 성도는 죽을 때까지 믿음이 계속 성장하도록
성화(Sanctification)에 힘써야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죄(罪)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구원이 온전히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성도의 삶의 최종(最終) 목적지(目的地)는 이 세상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城)이다

바울 사도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의 모습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과거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賞)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2-14)

바울 사도의 그리스도의 증인(證人)의 삶의 모습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禍)가 있을 것이로다

(고전9:16)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전9:27)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

바울 사도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회개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證人)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찬식의 포도주와 빵(떡)의 영적 의미



포도주/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 대속의 피/참된음료
나의 과거의 죄 대속
(히9:22/레17:11/요19:33-34)

빵(떡)/ 예수님의 살
어린양 예수/참된양식/말씀/검(칼)
나의 미래의 죄 대속
(요1:1/14/히4:12-14)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26:26-28)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6:54-55)

